

English Worship Service

[Westminster Hall, 11:15 am]

[Pastor: Daniel J. Kim]

Prelude	Pianist
* Call to Worship	Pastor
Praise & Worship	Praise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angChul Ryoo (Deac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Hebrew 11:1-12:3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Challenge of Faith”
* Hymn	491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Congregation

(* Please stand)

“Challenge of Faith”

Genuine faith involves both the cognitive understanding, heart's conviction, vocal declaration, and life manifestation of the content and essence of faith. Christian life must exemplify the quality and potentiality of faith (like the mustard seed - Mt.17:20) as the Lord would require of us. Faith is the norm of Christian life. All of Christian life—salvation, sanctification, ministry, mission—involves faith. Why? Because faith is the only way by which we can possibly relate to the transcendent God who is by nature invisible, intangible, and ineffable. Faith—not images, feelings, or ideas—then is the only appropriate way of perceiving God and true spiritual realities. Initially, we may begin with impressions, feelings, senses, or notions, but at some point, we must take a leap of faith in the dark. This is the nature of faith.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Heb.11:1,6). Such faith, as exemplified by numerous biblical and historical heroes (Heb.11:1-40), can emerge only through trials and sufferings of life. Having stripped away the worldly ways of thinking and superficial notions of spirituality, our faith becomes more refined and true, to a point that we may truly believe God to the extent of His abilities. As Jesus said, "Have faith in God ... I tell you the truth, if anyone says to this mountain, Go, throw yourself into the sea, and does not doubt in his heart but believes that what he says will happen, it will be done for him" (Mk.11:22-23).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has faith in me will do what I have been doing. He will do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 (Jn.14:12-14). The Lord teaches us to constantly live by faith, but occasionally challenges us to operate in extraordinary faith.

Announcements

We warmly welcome all newcomers to our worship service.
We invite you to join us for fellowship at Room 104 after the service.
If you have any special prayer requests, please submit them in the prayer box located at the rear, so that we may pray for you.

Sunday Study Groups are as follows:


- 10:00 am (Room 104) - Leadership and Intercession (led by Pastor Daniel)
- 12:00 pm (Room 104) - Children's Sunday School Class (led by Vung Zam Cing)
- 1:00 pm (Cafe 9th fl.) - Youth Bible Study (led by Jimmy Eppley)
- 1:30 pm (Room 902) - Young Adult Bible Study (led by Pastor David John)
- 1:00 pm (Room 604) - Adult Bible Study (led by Vung Zam Cing)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부서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603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603 호
유 년 부	오전 9시	701 호	예 바 다 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유초등부 연합 2부예배	오전 11시20분	701 호	장 년 1 부	오전 10시	본 당	
꿈나무영어성품스쿨	오후 4시	701 호	장 년 2 부	오후 3시30분	702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소요리문답부	오전 10시20분	903 호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 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새 가 족 부	원입반	오전 10시20분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전입반	오후 12시40분	
청년 1부	오후 2시	101 호	세 례 교 육 부	1부	오전 10시20분	
청년 2부	오후 2시	1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1 호	직분자양성부	오후 12시40분	606 호	
			새가족훈련영부	오후 12시40분	802 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유문건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교육상담목사 양재라	전도사(전도담당)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찬제중 삼진희 정대은 장재원	협동목사 김철홍 김다영	
전도사(교육담당) 구본혜 이진광 고수은 Vung Zam Cing, David John Khokhar		
선 교 사 강아곰주하나, 김모세이한나, 김원희동아시야,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박경진, 박병연(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리요,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상진(홍성인(필리핀),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말라레이), 이재훈(백제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타이), 김인사(현해욱(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한시울(일본), 김남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이)노동자, 훈쿠야 땅 탕, 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썬, 샌다, 사우, 키움 랑, 흐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마카엘(미얀마) 필리핀, 포르산포, 수레시, 수버산, 이경명 알로르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톤 수만존(방글라데시), 김택시 윤영모 노산애 이금순 김명일 김택수(군산교)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 중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박 노 철
Senior Pastor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복음과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 ("The Gospel and the Two Lost Sons ")

■ 녹 15:11-32

제가 자주 언급하는 Timothy Keller 목사님이 계신데 현재 뉴욕에 있는 Redeemer 장로교회의 담임목사님으로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도심개혁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앞으로 두 세 주 정도 주일 강단을 통해 그분의 책 The Prodigal God, 한국 제목으로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이란 책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소위 ‘탕자의 비유’ 가 전체의 주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자 나왔던 대부분의 청중들은 그 당시 죄인들이라 불렸던 ‘세리들과 창기들’ 과 같은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청중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부류의 청중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번의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앞의 두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 소위 ‘돌아 온 탕자’ 비유는 그 메시지의 대상이 두 명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집을 잘 지키고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큰 아들도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당사자였다는 것입니다.

2.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갈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있음에도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의 몫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흥청망청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한 이후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너무도 염치없고 부끄럽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품꾼의 하나라도 되려고 갔을 때 아들은 상상지도 못한 환대를 받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고 아들의 지위를 모두 회복받게 된 것입니다.

3. 맏아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누가복음 15장의 ‘돌아 온 탕자의 비유’ 를 우리는 그동안 너무 둘째 아들에게 집중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맏아들에게는 별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버지는 맏아들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셨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표상하고 있는 맏아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맏아들은 그의 열성과 많은 공로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함 때문에, 그 많은 공로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잃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의 공로와 그 공로에 대한 자랑이 이토록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다 치르셨는데 이런 십자가의 구원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만큼 큰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탕자인 둘째 아들보다도 더 심각한 맏아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이 맏아들의 모습이든 둘째 아들의 모습이든 그분께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응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복음을 받아드리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만을 생각하십시오.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런 복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준권 목사	조정식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신용식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오광환 장로

오후 5시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3:3-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2(시 37)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419(478)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 15:11-3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복음과 인간의 행복추구 박노철 목사 (The Gospel and the Pursuit of Human Happiness)
* 찬 송 Hymn	276(334)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목 도	다 함 께
성 시	합 3:2 인 도 자
찬 송	432(462) 다 함 께
기 도	한주찬 집사
성 경	눅 18:35-43 인 도 자
홍해작전 발대식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포기할 수 없는 부흥의 꿈 설 교 자
특별찬양	시온찬양대
* 찬 송	620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인도 설교 유문건 목사
II 부 오후 7시	최미아 권사
기 도	I부: 이안순 권사 II부: 최미아 권사
성 경	눅 7:11-1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청년아, 일어나라 설 교 자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오전 5시 분당 피아니스트: 이경화 · 홍혜란김영민
설 교 박노철 목사

금 요 기 도 회

홍해작전 기간중 금요기도회는 개인기도회로 대체됩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차주연	임아름	윤주일	가브리엘		임아름
II 부	할렐루야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류총기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병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향	박수강	윤주일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시온찬양대(대장: 차도훈 장로, 지휘: 최유현 집사)가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특 별 찬 양			
수요 I 부	호 산 나	구민영	김현정15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진형	박승기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교 회 소 식

◆ 모 임

- 제2권사회 직장인 모임 / 5일(주) 3부 예배 후 802호
- 이 미용봉사 (봉천동 동명노인복지관 한울건강센터) / 7일(화) 오전8시50분 104호
- 마리아 전도회 월례회 / 8일(수) 수요1부 예배 후 601호
- 리브가 전도회 월례회 / 8일(수) 수요1부 예배 후 602호
- 에스터 전도회 월례회 / 8일(수) 수요1부 예배 후 501호
- 한나 전도회 월례회 / 8일(수) 수요1부 예배 후 503호
- 뵤뵤 전도회 월례회 / 8일(수) 수요1부 예배 후 802호
- 스데반 월례회 / 11일(토) 오후3시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전 도 / 5일(주) 주일전도 : 전교인(1,23부 예배 후)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순례지와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7일(화) 오전 10시 70인전도대(대차삼성, 도곡래슬 롯데캐슬 진달래 대차 I-park, 삼성동힐스테이트 개포주)

오전 10시 70인전도대 화요기도팀(609호)

8일(수)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수요기도팀(609호), 문서전도팀(603호)

오후 1시 70인전도대 특례생 학부모 기도팀(903호)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에스터 전도회(607호)

오후 8시 70인전도대 수요아카데미, 스테반화(한티공원)

9일(목) 오전 10시 70인전도대(중점전도: 은마, 미도, 대치현대 역삼터키 개포주공7단지, 래미안 대치 팰리스)

오전 10시 70인전도대 목요기도팀 603호(11시 202호)

11일(토) 오후 3시 70인전도대 토요일노방팀, 엘리야 선교회(한티공원)

◆ 알 림

-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칼빈홀)

- Baby-sitting 운영 /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위해 403호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베들레헴 홀)

- 영어동시통역 (통역: 김사라 권사) / 2부 예배 시 외국인을 위한 영어동시통역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한편에서 안내원들에게 Earphone을 받아 사용하신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arphones are available to help your service,

please ask an usher at the door to assist you. (Interpreter : Sarah Kim)

- 세례식 신청 마감 / 6월 세례식이 6월 19일(주일) 1,2,3부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 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607호 : 6월5일 주일

문답총정리는 6월 12일(주일) 1,2부 예배 후 607호 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6월 12일(주일) 오후 1시 50분 602호 에서 있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607호 세례교육부)로 문의바랍니다.

뒷면으로 계속>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김춘자	7-3	한나	희락팀	양승열	교육2국	청년2부	본인	이서준3	교육1국	초등부	본인
김옥연1	16-6	뵤뵤	희락팀	강지혜1	9-4	도르가	황노전	이성준2	교육1국	초등부	본인
봉용철	7-3	안드레	희락팀	한승민	7교구	사랑부	행팀애매	이에인1	교육1국	영아부	이우용

앞면에서 계속

-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상담 주중에도 상담 가능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10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 의료 상담 / 진봉길(피부과) 주일 오전10시30분 - 오전1시까지

1층 서적부서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902-5922

◆ 결 혼

- 박준우 군(박용오, 손경애 씨의 장남)과 송윤영 양3교구 송용훈 집사, 김경진 권사의 처녀 /

6월11일(토) 오후1시 서울교회 분당(201호)

신앙인격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을 우리 사회는 훌륭한 인재라 칭한다. 그러나 요즘엔 감성지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인간이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 의지지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한 인간의 올바른 인격은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 작용의 종합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 인격이라 부른다. 지식 없는 신앙은 미신이거나 맹신이며, 감성이 결여된 신앙은 결의론적 사상에 빠져 율법주의 화될 것이다. 신앙은 지정의가 합친 전인적인 것이며 인간 몸에 부착된 액세서리나 없어도 될 부속품이 아니다. 인간의 지식, 감정, 그리고 의지는 매우 중립적인 것이어서 선용될 수도 악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 전제되지 않는 인간의 지정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무의미한 것이다.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